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Global SME Policy Trend

- 📍 **스페셜리포트** 인도 스타트업 발전 현황과 전망
- 📍 **해외동향** 미국, '18년 벤처투자 1,30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기록 (등 14건)
- 📍 **주요일정** VIVA Technology (프랑스 파리, 2019.5.16.~18) (등 6건)



목 차

I. 스페셜리포트

인도 스타트업 발전 현황과 전망

요약	1
1. 스타트업 현황	2
2. 스타트업 유형 및 특징	5
3. 스타트업 투자 동향	8
4. 스타트업 촉진 정책	12
5. 향후 전망	14

II. 해외동향

〈미국〉

1. 미국, '18년 벤처투자 1,30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기록	16
2. 뉴욕, 향후 글로벌 기술혁신 중심도시로 가장 유망하게 평가	17

〈독일〉

1. 독일, 중소기업 여성 오너십 지속 감소	18
--------------------------------	----

〈네덜란드〉

1. 네덜란드, 사회적기업 촉진을 위한 정책 생태계 지원 필요	19
--	----

〈EU〉

1. 유럽 중소기업, 고용창출에서 86%를 차지	20
2. EU, 혁신지원 정책의 고용관련 성과 분석	21
3. 유럽 및 북미, 산업 집중 추세 지속	22



목 차

〈일본〉

1. 일본, 여성 창업가 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시행 23
2. 일본, 지역산업 혁신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 인재 육성이 중요 24
3. 일본, 사업승계 지원 수단으로 민간시장에서의 M&A 플랫폼에 주목 25
4. 일본, 미중 무역마찰의 플러스 영향은 자동차 부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26
5. 일본 중견·중소기업, 조직체제 정비가 對美 비즈니스 성공의 주요 요건 27



1. 스타트업 리더십의 성 불평등 지속 28
2. OECD, 로봇 도입이 반드시 고용을 대체하지는 않아 29

Ⅲ. 주요일정

1. TNW201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19.5.9.~10) 30
2. WEBIT.FESTIVAL Europe 2019 (불가리아 소피아, 2019.5.13.~15) 30
3. RISE OF AI CONFERENCE (독일 베를린, 2019.5.16) 30
4. Latitude 59 (에스토니아 탈린, 2019.5.16.~17) 31
5. VIVA Technology (프랑스 파리, 2019.5.16.~18) 31
6. Collision (캐나다 토론토, 2019.5.20.~23) 31



인도 스타트업 발전 현황과 전망

요 약

- 인도 정부에 스타트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18년 3월말 기준 8,625개사
 - 설립연도별로 보면, '17년도 설립이 2,711개사, '16년도 설립이 2,597개사로 전체의 60%를 차지
 - 스타트업 중 기술 관련 스타트업은 2016년 이후 매년 1,000개 이상 설립
 - 인도의 유니콘 수는 '18년 11월말 기준 14개로 미국(150개 이상), 중국(약 90개)에 비하면 작지만 영국(14개)과 동일한 세계 3번째 규모

- 인도의 스타트업 유형은 ①타임머신형, ②첨단기술형, ③사회과제 해결형 등 3가지로 구분
 -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타임머신형 스타트업은 인도에서도 비중이 가장 큼
 - 첨단기술형은 AI, IoT,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으로, 타임머신형에 비해 절대적인 수는 적지만 스타트업 붐을 타고 늘어나는 추세
 - 최근에는 빈곤문제, 소득격차 문제, 의료서비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과제 해결형 스타트업도 증가

- 인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미국, 중국에 이어 3번째로 양국과 투자금액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투자처로 존재감을 과시
 - 그동안 인도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은 미국,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인도 국내 투자자금도 증가
 - 최근에는 대외 스타트업 투자에서 존재감이 낮았던 일본, 중국, 한국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시행
 - 한편 해외 기업의 인도 스타트업 투자·인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의 목적 중 하나는 인도 스타트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이나 인재를 자사에 흡수하는 것

- 모디 정부는 스타트업 촉진책인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이니셔티브를 통해 스타트업 설립을 적극 지원
 -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인 '스타트업 인디아 액션플랜'은 △제반 절차의 간소화, △자금지원과 인센티브 부여, △산학연계 및 인큐베이션 촉진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체제가 충실하게 갖춰지고 있으며 풍부한 창업인재,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즈니스 기회 확대가 맞물리면서 인도의 스타트업은 앞으로 순조롭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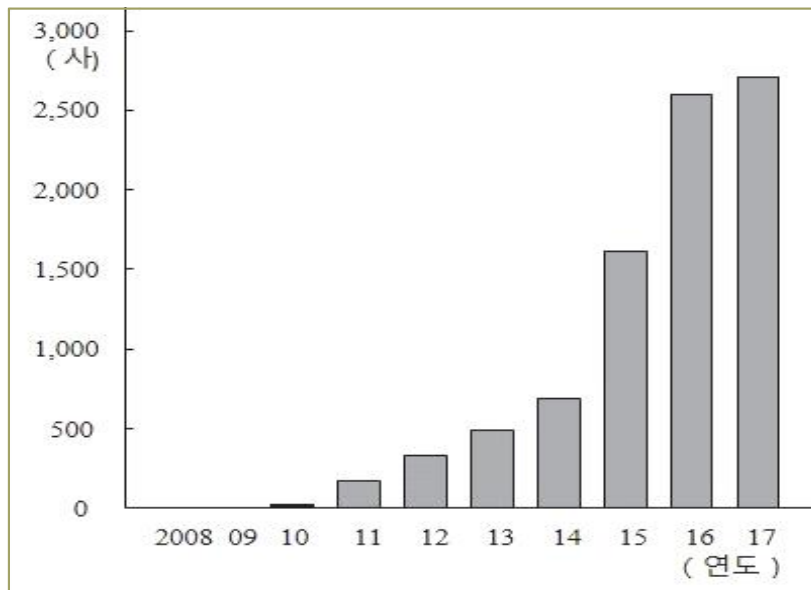
【원 문】

- 日本総合研究所, 活況を呈するインドのスタートアップ, 2019. 2

① 스타트업 현황

- 인도 정부에 스타트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18년 3월말 기준 8,625개사임¹⁾
 - 인도 스타트업 등록은 '09년도, '10년도 각각 3개사, 4개사에 불과했으나 '17년도 2,711개사, '16년도 2,597개사로 늘어나 이 시기 등록 기업이 전체의 60%를 차지
 - 스타트업이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생존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도 스타트업 설립이 최근 수년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 스타트업 중 기술 관련 스타트업은 '16년 이후 매년 1,000개 이상 탄생하고 있음

〈그림 1〉 설립연도별 정부 등록 스타트업 수



자료 : 日本総合研究所, 活況を呈するインドのスタートアップ, 2019. 2
 주 : 인도 회계연도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임

- CB Insights에 따르면, 인도의 유니콘 수는 '18년 11월말 기준 14개로 미국(150개 이상), 중국(약 90개)에 비하면 적지만 영국(14개)과 동일한 세계 3번째 규모임
 - 14개 유니콘의 설립 시기는 '00년대 후반부터 '10년대 전반까지 집중되어 있으며, 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걸린 시간은 대체로 5년 정도임
 - 업종별로 보면 전자결제(Paytm의 모회사인 One97 Communications), 택시 배차 앱(Ola), 전자상거래(Snapdeal, Shopclues, Quikr, Udaan)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 B2C사업임

1) 인도 정부가 2018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 Startup India[2018] "The Status Report"에는 등록된 스타트업 수가 14,036개임

- 최대 유니콘인 원97 커뮤니케이션(One97 Communications)의 감정평가액은 100억 달러로 세계 유니콘 중 20번째 규모임
- 전자상거래 기업인 플립카트(Flipkart)는 '18년 5월에 월마트에 인수되었는데, 인수되기 전 추정평가액이 208억 달러로 유니콘 규모로 세계 상위 10권에 들었음

〈표 1〉 인도의 유니콘 현황

기업명	추정평가액 (10억 달러)	사업 내용	설립연도	유니콘 진입 시기
One97Communications (Paytm)	10.0	전자결제	'10년	'15년 5월
Snapdeal	7.0	전자상거래	'10년	'14년 5월
OyoRooms	5.0	저렴한 호텔 예약 서비스	'13년	'18년 9월
OlaCabs	4.3	택시 배차 서비스	'10년	'14년 10월
ReNew PowerVentures	2.0	재생 에너지	'11년	'17년 2월
ZomatoMedia	2.0	식당 리뷰 사이트	'08년	'15년 4월
Hike	1.4	메시지 앱	'12년	'16년 8월
Swiggy	1.3	음식 배달	'14년	'18년 6월
Shopclues	1.1	전자상거래	'11년	'16년 1월
InMobi	1.0	호텔 광고 네트워크	'07년	'14년 12월
Quikr	1.0	전자상거래	'08년	'15년 4월
PolicyBazaar	1.0	보험상품 비교 사이트	'08년	'18년 6월
Byju's	1.0	온라인 동화(動畫) 교육	'08년	'18년 8월
Udaan	1.0	전자상거래(B2B)	'16년	'18년 9월

자료 : CB Insights
주 : 2018년 11월 기준

- 이처럼 인도는 스타트업 붐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스타트업은 발전 초기단계에 있고 경영 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그 성장은 원활하지 않은 편임
 - 인도의 스타트업은 성공한 선진국의 사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타임머신형이 많지만 사업 환경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대체로 실패함
 - 특히 인도는 사업 인프라 전반에 문제가 있어 스타트업을 인도에서 하면서 싱가포르나 미국 등에 등기상 본사를 두거나 도중에 이전하는 사례가 발견되는데, 이는 세금이나 자금조달에서 장점이 크기 때문임
- 유니콘 중 플립카트(Flipkart), 인모비(InMobi)는 싱가포르, 솅클루(ShopClues)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음

- 이 같은 환경 때문에 밸류챔피언 싱가포르(ValueChampion Singapore)가 실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스타트업 환경 조사에서 인도는 8위에 그침
 - 동 조사는 경제 건전성, 사업비, 사업 환경, 노동력의 질 등 4개 분야의 항목별 점수를 산출하고 평균해서 종합 점수를 산출함
 - (경제 건전성) △1인당 GDP, 경제성장률, 실업률, 은행계좌보유율 등
 - (사업비) △법인세율, △10년물 국채 이자율, △생활비 순위(The Economist), △대출자 급여 순위(Universum Global), △금융서비스 접근 용이성 순위(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anking)
 - (사업 환경) 인터넷 접근, 10만명 당 상업은행 수, 창업 용이성(World Bank), 공적기관의 힘·벤처캐피탈로부터의 자금조달 용이성(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anking)
 - (노동력의 질) 초등교육·중등교육 이수율(UNESCO), 직업훈련 제공 상황(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anking)

〈표 2〉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스타트업 환경 순위

		종합	구분			
			경제의 건전성	사업비	사업 환경	노동력의 질
1	싱가포르	4.1	5.2	6.5	3.2	1.7
2	홍콩	4.7	5.6	6.8	2.8	3.7
2	일본	4.7	4.6	7.8	3.7	2.7
4	대만	5.1	7.5	3.7	4.4	5.0
5	말레이시아	5.7	6.4	6.0	5.2	5.3
6	한국	6.0	5.6	7.5	6.7	4.3
7	중국	6.6	4.0	6.8	6.7	9.0
8	인도	7.1	7.2	4.7	7.5	9.0
9	인도네시아	7.3	8.0	5.0	8.0	8.3
9	태국	7.3	6.0	6.3	8.0	9.0
11	필리핀	7.8	8.6	7.0	10.7	5.0
12	베트남	8.5	8.0	5.8	10.0	10.3

자료 : ValueChampion Singapore [2018] “Best Countries in Asia-Pacific for Startups”

주 : 종합점수가 작을수록 순위가 높음

② 스타트업 유형 및 특징

- 인도의 스타트업 유형은 ①타임머신형, ②첨단기술형, ③사회과제 해결형 등 3가지임
 - 그러나 첨단기술을 활용하면서 사회과제를 해결하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3가지 유형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

-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임머신형 스타트업은 인도에서도 비중이 가장 큼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B2C사업이 중심인데, 성공한 스타트업은 단순히 선진국의 사업·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현지 사정에 맞춰 수정한 경우가 대부분임
 - 현재는 월마트에 인수된 전자상거래업체인 플립카트(Flipkart)는 ‘인도의 아마존’이라 불렸음
 - 서적 인터넷 판매부터 시작해 점차 취급 품목을 확대했다는 점은 아마존과 동일함
 - 그 한편에서는 인도의 열악한 물류망에 대처하기 위해 독자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많고 상품을 수령하고 나서 대금을 지불하려는 니즈에 대응해 현금배달(Cash on Delivery)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 이를 통해 고객기반을 강화해 현재는 아마존과 시장점유율을 경쟁하는 상태까지 발전하였음
 - ‘인도의 우버’라고 불리는, ‘11년 설립된 택시 배차 앱 올라캡스(Ola Cabs)는 시장 점유율이 56.2%로 우버 테크놀로지(Uber Technologies)의 39.6%를 상회함²⁾
 - 이는 올라캡스가 인도에서 우버보다도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①각 지역 언어에 대응, ②신용카드 미보유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불이 가능, ③서민의 발인 오토 릭샤(3륜택시)에도 대응하는 등 인도 진출 당시 우버에는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소비자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임

- 첨단기술형은 AI, IoT,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으로, 타임머신형에 비해 절대적인 수는 적지만 스타트업 붐을 타고 늘어나는 추세임
 - NASSCOM과 조사·컨설팅회사인 진노브 경영컨설팅(Zinnov Management Consulting)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13~18년에 설립된 7,200~7,700개의 기술계 스타트업 중 1,200개 이상이 첨단기술형임
 - 사용하는 기술은 빅데이터 분석(27%), IoT(26%), AI(24%) 등임

2) 2017년 12월 시점

- '14년 설립된 물류 스타트업인 리비고(Rivigo)는 AI, IoT,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텔레이방식으로 트럭의 장거리 수송 사업을 하고 있음
 - 국토가 광대한 인도에서는 그때까지 한명의 운전수가 도중에 몇 번 휴식을 취하면서 수 일~1주일 이상 걸려 목적지까지 트럭을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동사에서는 운전수가 전국 70개 중계지에서 트럭을 다음 운전수에게 인계하고 자신은 다른 화물을 적재한 트럭으로 출발지로 복귀함
 - 이를 통해 운전수의 부담을 경감하고 화물 배송시간의 단축도 목표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트럭에 센서를 설치해 트럭 위치, 운행 상황, 연료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고 이를 AI로 분석해 트럭과 운전수의 최적 배치와 운행 경로를 할당하고 있음
- 첨단기술형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 야후,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은 이미 인도 스타트업을 인수한 바 있음
 - 인수 이유는 모두 자사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세계적인 IT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인재를 이들 스타트업이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함

□ 최근에는 사회과제 해결에 도전하는 스타트업도 등장하고 있음

- 인도는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80년대 이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심각한 빈곤문제도 안고 있음
 - '14년에는 성인인구의 상위 10%가 소득 전체의 54.2%를 차지하는 등 최대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0.758명('16년, 일본은 2.367명)으로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5세 이상 인구 중 학교에 다니지 않은 인구 비율도 41.3%에 달함('11년 기준)
- 이러한 사회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헬스케어, 교육, 금융포용성 등이 많음
- 스타트업은 규모가 작고 현장과 가깝기 때문에 사회과제의 본질이나 배경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음

〈표 3〉 사회과제 해결형 스타트업의 대표 사례

업종	비중	대표적인 스타트업	
헬스케어	20%	Uber Diagnostics('14년 설립) • 지방을 위한 저비용 진단 툴	Doctor Insta('15년 설립) • 온라인 진료
교육	18%	Edudharma('16년 설립) • 장학금 크라우드 펀딩	Meghshala('13년 설립) • 교사 레벨업을 위한 앱
금융 포용성	18%	Shiksha Finance('14년 설립) • 저소득 세대를 위한 교육 대출	SMEcorner('14년 설립) •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대출
환경·공중위생	15%	Let's Recycle('12년 설립) • 자원 쓰레기의 리사이클	Banyan Nation('13년 설립) • 자원 쓰레기의 리사이클
농업	12%	AgroStar('08년 설립) • 농업을 위한 모바일 앱	EM3 Agri Services('13년 설립) • 농기구 렌탈
에너지	8%	MYSUN('15년 설립) • 태양광 발전	Greetude Energy('14년 설립) • 에너지 효율적 이용 지원
범죄예방	4%	SocialCops('13년 설립) •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측	Safetipin('13년 설립) • 지역 안전을 위한 모바일 앱

자료 : 日本総合研究所, 活況を呈するインドのスタートアップ, 2019. 2

주 : 비중은 대표적인 사회과제해결형 스타트업 325사를 선정해 분류

□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성공을 거둔 인재들을 살펴보면, 전형적으로 인도공과대학(IIT), 인도경영대학원(IIM), 비클라공과대학(BITS) 등 일류대학을 졸업하고 글로벌 IT기업의 인도 자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음

○ 스타트업 창업자 가운데는 미국 유학 경험자도 일정 비율 존재하는데, 미국에서 수준 높은 교육·연구기회를 얻고 스타트업 문화를 접한 이들은 졸업 후 미국기업에 취직한 이후 귀국해 직접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있음

- 미국 대학에 재적(在籍) 중인 외국인 학생 중 인도 출신자는 '17년도에 19만 6천명이며, 이중 50% 정도인 9만 6천명은 대학원생임³⁾

- 유니콘 14사 중 4사의 창업자가 미국 대학을 졸업하였음

○ 인도의 IT 인재가 우수한 이유 중 하나는 IT산업의 경우 카스트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임

□ 한편 인도에 IT엔지니어가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점은 인도 스타트업에게 큰 강점이며, IT엔지니어의 수는 물론 이들의 능력도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음

3) 중국 유학생은 36만 3천명, 일본 유학생은 1만 9천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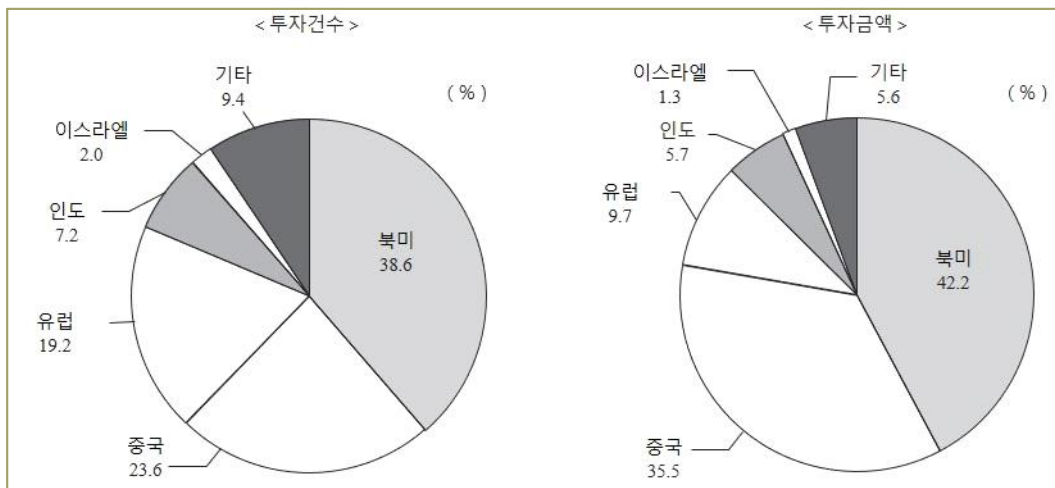
- 인도는 오랫동안 오프쇼어 개발·해외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⁴⁾ 거점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인재 공급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IT기업 고용자수는 '17년도에 390만명으로 일본 75만명, 미국 145만명을 크게 상회함
 - IT인재 공급원으로는 공학을 가르치는 대학이 전국에 3,000개 이상 있으며, '14년에는 82만명이 공학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 인도 IT엔지니어는 숫자도 많지만 질도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음
 - 이는 오프쇼어 개발 수탁을 통해 IT 관련 세계 최신키텔과 노하우를 학습해, 다음에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나올지를 일찍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임

3 스타트업 투자 동향

- 중국이 지난 10년간 스타트업 대국으로 성장한 가운데, 인도 스타트업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거대한 인구,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가 중국과 같은 코스를 밟으며 새로운 스타트업 대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임
 - 인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미국, 중국에 이어 3번째로 양국과 투자금액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투자처로 일정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음
 - '17년 세계 VC투자안건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는 7.2%, 금액으로는 5.7%였음
- 그동안 인도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은 미국,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인도 국내 투자자금도 늘어나고 있음
 - 이는 국내VC가 잇따라 등장한데다 재벌이나 창업경험자가 엔젤투자자로 적극 투자하고 있기 때문임
 - 최근 5년간 인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건수를 보면 61%가 국내 투자자였음
 - 단, 금액 기준으로는 해외자금이 여전히 많음

4)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은 회사의 핵심 업무를 제외한 과정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아웃소싱 방식임

〈그림 1〉 국가·지역별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2017년)



자료 : Preqin, "Venture Capital Activity in 2017: exclusive extract from the 2018 Preqin Global Private Equity & Venture Capital Report", 2018

주 : 중국은 홍콩과 대만을 포함

- 최근에는 인도 스타트업 투자에서 존재감이 낮았던 일본, 중국, 한국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 특히 소프트뱅크가 연이어 대형투자를 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액이 급증하고 있음
 - 소프트뱅크는 '11년에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인 인모비(InMobi)에 2억 달러를 출자하면서 인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였음
 - '14년 손정의 사장이 인도의 통신·IT장관과의 회담 시 인도 IT·통신 분야에 총액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후 인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 한편 해외 기업의 인도 스타트업 투자·인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의 목적 중 하나는 인도 스타트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이나 인재를 자사에 흡수하는 것임
 - 인도에서 첨단기술형 스타트업이 점차 증가하면서 그 기술 및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 출자나 인수를 실시하는 해외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의 IT 대기업에 의한 매수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 많음
 - 야후에 의한 북패드(Bookpad, 문서 서비스) 매수는 무료 메일 서비스 강화, 페이스북에 의한 리틀 아이랩(Little Eye Labs, 앱 해석 및 최적화) 매수는 페이스북 앱의 퍼포먼스 향상, 애플에 의한 튜플점프(Tuplejump, 인공지능) 매수는 AI 사업 강화, 구글에 의한 할리랩(Halli Labs) 매수는 AI 사업 강화 등이 주 목적임

- 해외기업의 인도 스타트업 투자·인수의 두 번째 목적은 인도의 높은 잠재력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시장을 흡수하는 것임
 - 인도의 '17년 1인당 명목GDP는 1,908.5달러로 내구재 소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3,000달러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 성인인구 중위 40%의 연간 평균소득은 6,110달러로 중국 18,720달러의 약30% 수준에 불과함
 - 그러나 '24년에는 인구가 중국을 추월해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4세 이하가 전체의 50%⁵⁾에 가까울 정도로 인구구성이 젊으며, '40년까지 인구 보너스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 따르면, '18년 시점에 13.9%에 불과했던 인도 중산층 비율은 '25년에는 51.0%로 확대될 전망이다
 - 월마트의 플립카트(Flipkart) 인수는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자사의 기존 인도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겨냥한 것임
 - 중국 알리바바는 '17년말까지 10사 이상을 인수하고, 80사 이상에 투자하였으며, 텐센트는 약 10사 인수, 200사 이상의 투자를 실시하였음
 - 알리바바의 주요 투자 대상은 원97 커뮤니케이션(One97 Communication, 모바일 결제), 스냅딜(Snapdeal, 전자상거래), 빅바스켓(BigBasket, 전자상거래), 조마토(Zomato, 레스토랑 검색) 등임
 - 텐센트의 주요 투자 대상은 프랙토(Practo, 의사 검색·의료정보 서비스), 하이크(Hike, 메세지 앱), 올라 캡스(Ola Cabs, 배차 앱) 등임

5) 2015년 기준. 중국은 30%, 일본은 20% 수준임

〈표 4〉 최근 해외기업에 의한 인도 스타트업 주요 인수 사례

매수 연도	매수기업(국가)	피인수 인도 스타트업		인수의 주 목적
		기업명	사업 내용	
'14년	야후(미)	Bookpad (‘13년 설립)	문서·서비스	야후 메일(Yahoo Mail) 사업 강화
'14년	페이스북(미)	Little Eye Labs (‘12년 설립)	앱 분석·최적화	페이스북 앱의 퍼포먼스 향상
'15년	트위터(미)	ZipDial (‘10년 설립)	모바일·마케팅·분석	접근 고객층 확대
'16년	애플(미)	Tuplejump (‘13년 설립)	AI	AI사업 강화
'17년	구글(미)	Halli Labs (‘17년 설립)	AI	AI사업 강화
'17년	에비克斯(Ebix, 미)	ItzCash Card (‘06년 설립)	전자결제, 송금	자사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17년	뉴스 코퍼레이션 (NewsCorporation, 미)	GyanMatrix Services (‘15년 설립)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앱 개발·분석	디지털 사업 강화
'17년	APUS(중)	SiftrLabs (‘15년 설립)	사진 큐레이션·플랫폼	인도의 스마트폰 앱 시장 확보
'17년	프레쉬웍스 (Freshworks, 미)	Zarget (‘15년 설립)	웹 최적화· 마케팅 소프트웨어	마케팅 솔루션 사업 강화
'17년	OMA Emirates (아랍에미레이트)	MobiSwipe Technologies (‘11년 설립)	모바일 결제 앱	모바일 POS사업 다국 전개
'18년	월마트(미)	Flipkart (‘07년 설립)	전자상거래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 확보
'18년	구글(미)	Sigmoid Labs (‘13년 설립)	기차 정보 앱	인도의 인터넷 서비스 시장 확보

자료 : 日本総合研究所, 活況を呈するインドのスタートアップ, 2019. 2

□ 해외기업들은 인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매수 뿐만 아니라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화이저(Pfizer), 페이팔(PayPal),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시스코(Cisco), 오라클(Oracle), 인텔(Intel), 타겟(Target) 등 구미기업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에 대해 공동 작업 공간, 멘터십, 자사 네트워크에의 접근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망한 스타트업을 조기에 발굴해 연계·제휴를 모색하기 위한 것임

- 예를 들면, 미국의 소매 대기업인 타겟(Target)은 인도에서 소매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3년부터 매년 4개월에 걸쳐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18년 제6차 프로그램에 선정된 것은 AI와 AR 관련 스타트업 6개사였음

4 스타트업 지원 정책

- 모디 정부는 인도 국내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대규모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스타트업 촉진책인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음
 - ‘스타트업 인디아’는 모디 수상이 ‘15년 8월 15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발표했으며, ‘16년 1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인 ‘스타트업 인디아 액션 플랜(이하 ‘액션 플랜’)’이 발표되었음
 - ‘액션 플랜’에서는 스타트업을 ①인도 국내에서 설립·등록된 7년 이내(바이오기술 관련인 경우는 10년 이내), ②연간 매출액 2.5억 루피 이하, ③제품, 프로세스, 서비스 등의 혁신·개발·개량을 추진하고 있거나 고용창출 또는 부의 창조 가능성이 높은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일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액션플랜’은 △제반 절차의 간소화, △자금지원과 인센티브 부여, △산학연계 및 인큐베이션 촉진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절차 간소화 조치 중 하나는 스타트업 도산 처리의 신속화를 들 수 있음
 - ‘16년 제정된 ‘2016년 파산도산법(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 2016)’에 패스트 트랙 조항 형태로 포함되었음
 - 동법에서는 일반 기업의 경우 도산 처리 절차 개시 결정부터 180일 이내(연장은 1회에 한해 90일)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90일 이내(연장은 1회에 한해 45일)에 완료하도록 규정함
 - 자금지원 조치 중 하나는 모태펀드 설립임
 - 정부가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모태펀드를 설립하고,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VC로부터의 투자에 대해 최대 50%를 매칭해 자금을 모집함
 - 거출액은 4년간 1천억 루피임
 - 산학연계와 인큐베이션 촉진을 위해 국가 전체적으로 창업과 혁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이벤트 개최, 대학과 제휴한 대학발 스타트업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이노베이션 센터와 리서치 센터 설립 등을 추진함

〈표 5〉 스타트업 인디아 액션 플랜 개요

	주요 조치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의 노동·환경규제 준수 의무를 자기신고제로 변경 • 스타트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스타트업 인디아 허브(Startup India Hub) 설립 • 스타트업에 대해 사업등록 등을 위한 모바일 앱 제공 • 스타트업의 특허 심사에 대한 패스트 트랙과 일부 비용의 경감, 특허신청 등에 관한 법적 지원 •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조달 규칙의 완화 • 스타트업의 파산 처리 절차의 신속화
자금지원과 인센티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설립과 4년간 합계 1,000억 루피 자금 모집 • 스타트업에 대한 은행 대출의 신용보증 •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면제 • 스타트업에 대한 3년간의 소득세 면제 • 인큐베이터의 스타트업에 대한 공정시장가액을 상회하는 투자에 대해 세금 공제
산학연휴와 인큐베이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 이벤트의 정기 개최 • 기업가정신과 혁신 촉진을 위한 플랫폼 Atal Innovation Mission 설립 • 전국에 인큐베이터 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 대학 내에 31개의 이노베이션·기업가정신 센터, 13개의 스타트업 센터, 18개의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설립 • 대학 내에 7개 연구단지(research park) 설립 • 바이오기술 분야에서의 스타트업 촉진 • 학생을 위한 이노베이션 촉진 프로그램 • 우수한 인큐베이터에 대한 표창 제도

자료 : Startup India, "Action Plan", January 16, 2016

- 인도 IT산업은 국제경쟁력이 높은 산업분야라는 점에서, 많은 스타트업은 IT를 구사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진흥은 IT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임
- 특히 기대하는 부분은 고용창출 효과로, 인도는 노동력 인구 증대에 걸맞는 고용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임
 - NASSCOM과 Zinnov는 '13~'18년에 7,200~7,700개사의 기술계 스타트업이 설립됨으로써 총 4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었다고 발표함
 - 정부가 '18년 4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 등록 스타트업 6,954개사는 총 8만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음
 - 인도 전체 취업자 수를 감안하면 아직 고용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향후 스타트업 수가 증가한다면 일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여기에 중앙정부의 스타트업 촉진책에 자극을 받아 지방정부도 잇따라 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 스타트업 유치경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스타트업 인디아'가 시행되기 전에는 스타트업 촉진책은 4개 주에서만 실시되었는데, 현재는 22개 주 및 연방직할령에서 촉진책이 시행되고 있음
- 각 주 정부는 자신들의 주를 스타트업 허브로 만들기 위해 규제완화, 보조금 지급, 사무실 제공 등 스타트업 유치경쟁을 확대하고 있음

5 향후 전망

- 발전 초기단계인 인도 스타트업이 순조롭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정비되고 있음
 -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투자가의 다양화를 통해 전체적인 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크라우드 펀딩 등 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도 등장하고 있음
 -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 전문조직, 사업회사, 대학 등에 의해 잇달아 설립되고 있으며, 그 수가 100개를 넘음
 - 협업공간(coworking space)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정책면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스타트업 인디아' 및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촉진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대학도 IT 인재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현재는 창업 인재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음
- 이 같이 지원체제가 정비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인재의 증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즈니스 기회 확대라는 2가지 호재를 기대할 수 있음
 - 트럼프 정권이 출범한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미국 대학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과거라면 미국사회에서 활약할 잠재력 높은 인재가 인도로 돌아오고 있음
 - 이들 가운데 스타트업 창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인도의 스타트업 저변 확대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인도는 스마트폰의 통신료가 낮아지면서 급증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잠재고객으로 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음
 - 스마트폰용 앱 개발은 저비용으로 해결 가능하며 개발공정이 짧고, 사양 변경이나 추가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상황은 스타트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체제가 충실하게 갖춰지고 있으며 풍부한 창업인재,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즈니스 기회 확대가 맞물리면서 인도의 스타트업은 앞으로 순조롭게 발전할 가능성이 큼
 - 단, 정부의 스타트업 촉진책이 의도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대규모 고용기회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인프라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II 해외동향



1 미국 '18년 벤처투자 1,30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기록

- '18년 미국의 벤처기업 대상 투자건수는 8,948건으로 전년대비 5.7% 감소했지만 투자총액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1,309억 달러로 사상 최고였던 닷컴버블기('00년) 수준을 상회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
 - 특히 미국의 유니콘 기업은 최근 156개사로 사상 최다를 경신하고 있으며, '18년 이들의 누적 조달액은 전년도의 약 2배인 154억 달러를 기록
 -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저금리와 양적완화에 힘입어 전문 벤처캐피털(VC)의 자금 조달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
 - '18년 CVC(기업주도벤처캐피탈, Corporate Ventuer Capital)의 투자가 전년대비 1.8배인 668억 달러까지 증가해 벤처투자 총액의 50%를 넘을 정도까지 확대
- 미국의 벤처투자 동향과 관련해 향후 주목할 점은 일단 금융시장에서 장기적으로는 양적완화가 축소되겠지만 '19년 들어 정책금리 인상은 속도를 조절하는 양상이어서 VC는 계속 왕성한 투자자금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
 - 이런 가운데 '19년에는 미국 유니콘 기업 가운데서도 특히 평가가 높고 예상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를 넘는 4곳의 신규상장이 예정
 - CVC의 경우 지난해 8월 미중 무역마찰을 배경으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권한이 강화되고 외국기업의 대미(對美)투자 심사기준이 엄격해진 후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 마인드 후퇴를 우려하는 의견도 존재
 - 그러나 '19년 2월까지의 상황을 보면 중국기업의 CVC투자는 전체의 10% 미만으로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중국 이외의 외국기업의 CVC투자는 견조한 모습이 지속
 - 최근에는 자동차나 기계관련 기업이 CVC를 통해 AI, IoT 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가속화

▶ 자료 : 미국 벤처투자 현황 및 시사점(活況を呈する米国ベンチャー投資と今後の注目点), 三井住友銀行, 2019.4

② 뉴욕, 향후 글로벌 기술혁신 중심도시로 가장 유망하게 평가

- KPMG의 글로벌 기술 산업 혁신 조사에서 처음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실리콘밸리가 4년 후에는 더 이상 세계 기술혁신센터 위치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
 - 향후 4년 후에는 세계 기술혁신센터가 실리콘밸리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58%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
- 뉴욕, 보스턴, 오스틴 및 워싱턴 D.C. 등이 새로운 혁신센터 후보로 거론되었으며, 뉴욕은 향후 4년 동안 실리콘밸리 외부의 선도적인 기술혁신 허브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선정
 - 뉴욕은 위의 각 조사 결과 중 20위 내에 들지 못한 것이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높게 평가
 - * A.T 커니, 2018 글로벌 도시 보고서(A.T. Kearney's 2018 Global Cities Report), 이지파크 그룹, 스마트도시 지수(EasyPark Group, The Smart Cities Index), 네바라 대학 IESE 경영대학원, 도시 활력 지수(the Business School at the University of Navarra, The Cities in Motion Index), 머서, 삶의 질 순위(Mercer, Quality of Living Rankings) 등의 데이터를 함께 고려해 향후 기술혁신 중심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
 - 뉴욕은 기술 대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KPMG 조사에서 1위를 차지
- 베를린은 KPMG 조사와 다른 4가지 지표에서 가장 일관된 순위를 기록
 - 베를린은 20위 내에 들지 못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미래 기술혁신센터로서의 잠재력이 과소평가되었다는 주장도 가능
 - 한편, 지난해 KPMG 조사에서 제외된 파리는 올해 14위에 올랐으며, 3개의 다른 지표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
 - 아시아태평양지역 도시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모든 지표에서 가장 일관된 평가를 획득하였고, 도쿄, 서울, 홍콩은 KPMG 조사와 도시활력지수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다른 3가지 지표에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

▶ 자료 : KPMG, 글로벌 기술혁신 중심도시에 대한 조사(Technology Innovation Hubs), KPMG, 2019

③ 독일, 중소기업 여성 오너십 지속 감소

- '17년 독일 중소기업 중 여성 오너 경영자 비중은 15.4%로 전년보다 1%포인트 하락
 - 전체 중소기업 376만개 중 여성 오너 경영 기업은 58만개이며, 여성 오너 비중은 '13년에 19.4%로 최고를 기록한 후 하락해 '17년까지 4%포인트 감소

- 여성 오너 경영자 비중이 감소하는 주 요인 중 하나는 양호한 노동시장 상황
 - 여성들은 점차 자영업보다는 임금 고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 결과 스타트업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
 - 여성에 대한 매우 양호한 노동시장 전망이 여성 경영 중소기업 수 증가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17년 전체 기업 설립자 중 여성 비율은 37%로 2015년에 비해 6%포인트나 하락
 - 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00년 60.8%에서 '17년에는 75.2%로 크게 상승

- 여성 오너 경영자들의 평균 연령은 56세로 남성에 비해 2년 낮은 것으로 조사
 - 여성 오너 경영자 중 49%는 고등교육기관 학위를 갖고 있으며, 34%는 도제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합격하거나 기술학교 증명서를 보유
 - 남성의 경우 이 비중은 각각 43%, 25%로 여성에 비해 낮은 수준
 - 여성 오너 경영자의 11%는 장인 마스터 자격 또는 엔지니어링 학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남성 비중 28%보다 낮은 수준
 - 사업 분야의 경우 여성 오너 경영자들은 서비스 기업을 선호하며, '17년 서비스 분야 비중은 85%(남성은 76%)를 차지
 - 여성 오너 경영자 중 기존 기업을 인수한 비중은 33%로 23%인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새로 기업을 설립한 비중은 여성 64%로 남성 72%에 비해 낮은 수준

▶ 자료 : 독일, 중소기업 부문 여성 오너십 지속 감소(Female ownership decreases further in Germany's SME sector), KfW, 2019.2

4 네덜란드, 사회적기업 촉진을 위한 정책 생태계 지원 필요

- 네덜란드 정부가 사회적 기업가정신 및 사회적기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
 -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가정신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실체(entities)들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사회적기업에 대한 위상과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법률 및 규제 옵션이 필요
 - 사회적기업은 회사 규정에 그들의 사회적 미션과 의도하고 있는 광범위한 영향을 명시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
-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고 입증하는 것은 정치적 및 기업 아젠더 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및 투자자가 사회적기업에 투자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매할 때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이해 가능
 - 네덜란드 정부는 '임팩트 패드(Impactpad)'라는 툴을 통해 이 분야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은 영향이 미치는 영역의 다양성과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실체를 간과할지 모르는 잠재적 리스크에 주의
 - 소규모 및 초기단계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라벨(label)과 바우처 제도를 개발해 사회적 영향 측정을 장려하고 지원
- 사회적 기업가 역량과 스킬의 개발을 위한 기업가 교육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개발
 - 이외에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전을 위해 시장 접근 향상,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전을 위해 자금 접근 향상,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 보장 등이 필요

▶ 자료 : 네덜란드의 사회적 기업가정신 및 사회적기업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Boosting Social Entrepreneurship and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in the Netherlands), OECD, 2019.1

5 유럽 중소기업, 고용창출에서 86% 차지

-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정보회사인 뷰로반다익(Moody's Bureau van Dijk)에서 발행한 '04~'15년 기업수준 고용 데이터를 이용해 유럽 연합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최신 실증분석을 실시
 - 최종 샘플은 28개 회원국 중 20개국 데이터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지표를 사용
 - 고용창출[감소]은 성장[축소]하는 기업에 의해 창출된[감소된] 일자리 총수
 - 순고용창출은 고용창출과 고용 감소의 차이이며, 고용 성장을 의미

-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86%이며, 국가별로 비교적 동질적
 - 업력이 0~5년인 신생 중소기업(young-SME)은 순고용창출(고용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
 - 이들의 고용 비중은 15%인데 반해,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는 40% 정도
 - 신생 중소기업이 고용감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고용창출 비중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기존 중소기업(old SME)은 평균적으로 고용감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고용창출에서의 비중 46%보다 높은 수준

- 3년간 평균 연간 고용증가율이 20% 이상인 고성장기업(HGF, High-Growth Firm)은 총고용 창출의 60% 정도를 기여
 - 유럽 제조업의 경우 고성장 기업이 고용창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서비스 부문의 경우 60% 이상을 차지
 - 고성장 기업은 신생 및 소기업(young and small)에 국한되지 않으며, 제조업의 경우 신생 소규모 고성장 기업은 총 고용창출의 17%를 기여하지만 기존 소규모 고성장 기업은 22% 기여하며, 서비스 부문의 경우 이 비중은 각각 24%, 27%를 기록
 - 신생 고성장기업(young HGF)이 숫적으로는 많지만 성숙한 고성장기업이 고용창출에 대해 더 크게 기여

▶ 자료 : 유럽 기업들의 고용창출에 대한 분석(Job Creation in Europe: A firm-level analysis), European Commission, 2019

⑥ EU, 혁신지원 정책의 고용관련 성과 분석

- 혁신지원 정책은 지원 범위, 목적, 지원 대상 및 전략적 방향성 등에 따라 기업 차원, 네트워크 차원, 전략 차원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
 - 기업 차원의 정책은 개별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차원의 정책은 기업과 연구소 및 공공기관과 같은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을 지원
 - 전략적 차원의 정책은 개별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유리한 경제 및 사업 환경 조성 이 목적

- 기업 차원의 지원 정책은 △R&D에 대한 세금 공제, △보조금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 장려, △다른 제공자로부터 지원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혁신 바우처, △혁신적 스타트업의 창출과 발전, △기업 조언 및 직접 지원 등을 실시
 - 네트워크 차원의 지원 정책은 △산업과 연구소간 구조화된 네트워킹과 협력 증진, △산업과 연구소의 공동연구를 위한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는 혁신, 지식 또는 경쟁력 인프라,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공동 이해 및 니즈를 가진 기업 그룹의 경제적·산업적 발전을 지원하는 산업 클러스터 촉진 등
 - 전략적 차원의 지원 정책은 △혁신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동기 부여, △공공기관이 혁신을 촉진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입찰을 통해 구매, △지역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촉진하는 부문 및 영역에 집중하는 스마트전문화 (Smart Specialization) 지원 등

- 분석 대상 15개 정책 수단의 가장 일반적인 고용관련 성과는 일자리 창출이며 15개 정책 중 11건이 성과를 달성
 - 4개의 정책은 특정 그룹을 목표로 그들의 작업장 참여와 발전을 지원하며,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주로 여성 또는 고령 근로자, 젊은 대학 졸업자에 초점
 - 전문적이며 고도로 숙련된 직원의 고용은 15개 중 1/3 이상에서 나타나며, 주요 효과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창출하고 학계 및 박사 졸업생과 같은 R&D 이력을 가진 근로자를 노동시장에 흡수
 - 근로자의 숙련 및 역량 향상과 관련해서는 4가지 정책이 성과를 나타냈으며, 작업장 방식 및 근로조건 개선의 성과는 1/3 이상의 정책에서 발생

▶ 자료 : EU, 혁신지원정책의 고용효과 분석(Employment effects of innovation support), Eurofound, 2019.1

7 유럽 및 북미, 산업 집중 추세 지속

- MultiProd 데이터 기반 분석에 따르면, '01~'12년 사이에 유럽 10개 국가 평균으로 산업 판매 중 가장 규모가 큰 10% 기업 점유율이 2~3%포인트 증가
 - Orbis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 결과도 '00~'14년 사이에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산업 집중도가 평균 4~8%포인트 상승
 - 북미와 유럽 모두 4개중 3개 산업에서 집중도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제조 및 비금융 서비스 부문 모두에서 관찰

- 제조와 서비스 모두 판매 규모가 큰 기업이 차지하는 총산출(output), 부가가치, 총고용 비중 측면에서 집중 수준이 동등한 수준
 - 하위 10%, 상위 10%, 10~90%로 구분해 총산출, 부가가치, 고용의 비중을 보면, 제조 총산출의 83%(서비스의 경우 82%)가 상위 10% 기업에 의해 생산
 - 부가가치의 경우에 제조는 79%, 서비스는 77%가 상위 10% 기업에 의해 생산되며, 고용은 제조의 경우 67%, 서비스의 경우 66%가 상위 10% 기업이 차지

- 각 국가별 세분 2단위(STAN A38)에서 시간에 따른 집중 추세를 보면, '01~'12년 동안 유럽 국가에서 산업 집중이 증가
 - 특히 제조 부문에서 매출 상위 10분위의 총산출 비중은 2%포인트 가량 상승
 - 비금융 시장 서비스의 경우 제조 부문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지만, 총매출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3%포인트 정도 상승

- '00~'14년 동안 세분 2단위 산업 중 유럽 77%, 북미 74%의 산업 집중이 증가
 - 이 기간 동안 유럽 산업 평균 집중 수준은 4%포인트, 북미 산업은 평균 8% 포인트 상승
 - 부문별로 보면 유럽에서는 제조 및 서비스 부문에서 집중도가 비슷하게 증가한 반면 북미지역에서는 서비스가 더 크게 증가
 - 유럽의 경우 제조업 평균과 서비스업 평균 모두 상위 8개 기업이 '14년 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년에 비해 4% 증가

▶ 자료 : 유럽 및 북미의 산업집중 추세 분석(INDUSTRY CONCENTRATION IN EUROPE AND NORTH AMERICA), OECD, 2019.1

⑧ 일본, 여성 창업가 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시행

- 아베내각은 ‘1억 총 활약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모든 이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한다는 정책목표를 발표
 - 이 중 그동안 직장의 남녀 기회균등 실현에 주안점을 두었던 여성의 활약촉진책은 최근 여성창업가 및 전문직 증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
 - ‘1억 총 활약 사회’는 50년 뒤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젊은이도 고령자도, 여성도 남성도, 장애를 가진 사람도 난치병을 가진 사람도,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모두 포용하여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의미
- 일본 경제산업성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6년부터 ‘여성 창업가 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실시
 - 기존의 창업지원 정책과 달리 초기 단계의 창업을 지원 타깃으로 하는 것이 특징
 -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창업이라는 방법을 모르고, 관심이 없다’는 0단계부터 ‘하고 싶은 것을 구체화했고 창업이란 방법에도 관심이 생겼다’는 1단계가 여성 창업, 특히 마마 창업 지원의 중요한 단계
- ‘16년 사업이 실시된 이후 ’17년 말에는 전국 10개 지역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이 약 480개까지 확대
 - ‘17년도 이벤트·세미나 참가자 총 4,303명 가운데 0단계, 1단계 해당자는 2,214명이었으며 일부 지역은 0단계, 1단계 해당자가 70~80%를 차지
 - 여성창업가 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0, 1단계 여성을 지원하는 방법, 조언할 내용 등을 지역을 초월해 과제, 정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업을 실시
 - ‘전국 연락회의’, ‘멘토 연수’와 우수한 지원방법 및 성과를 올리는 지원기관을 표창하는 ‘여성창업가 지원 콘테스트’가 대표적
- 0, 1단계 여성 창업지원 방법으로는 ①커리어 카운슬링 요소를 반영한 지원, ②심리적 지원, ③여성창업가들의 교류의 장 마련, ④여성을 의식한 홍보, 운영 등이 필요

▶ 자료 : 일본, 마마 창업의 특징과 요구되는 지원책(ママ起業の特徴と求められる支援策), 日本政策金融公庫, 2019.2

9] 일본, 지역산업 혁신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 인재 육성이 중요

- 지역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경영자, 지역 내외의 창업가 육성·활용 등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노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인 ‘OS’*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야만 기존 경영자나 창업가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
 - OS 버전의 업그레이드 계기는 ‘주체성 회복’으로, 지역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그 지역에 대한 경영 감각이 뛰어난 리더십 있는 수장과 지역기업 경영자
 - 지역 내외의 창업가가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신용력과 경영경험을 토대로 멘토 등 다양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후원하는 노력이나 정책이 필요
- * ‘앱’은 지역이 가진 유·무형 자산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치화하고 있는 비즈니스이며, ‘OS’는 비즈니스가 진가를 발휘하고 동시에 지속성을 갖도록 하는 인재·조직 등으로 설명
- 지역산업에 혁신을 초래하려면 지역외의 경영자, 창업가 등 즉 ‘타지 사람’이 관여해서 지역에는 없는 새로운 시각이나 노하우를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
 -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다양한 시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지역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
 - 일부 지자체는 학생을 중심으로 조기단계부터 지역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면 지역을 떠난 젊은이들도 지역으로 돌아와 다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인재환류 사이클 구축이 가능
- 각 지역은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외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흡수해 지역의 자연자원, 사회·문화자본, 산업, 인재 등 다양한 유·무형 자산을 활용해 혁신적인 앱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
 - 지역기업의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로부터의 점진적 접근이 아닌 장래를 백캐스팅(backcasting)한 후 그 실현에 접근하는 진행이 필요
 - 구체적으로는 지역·기업이 장래 비전을 구축하고 이를 이해 당사자들과 공유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콘셉트를 구축
 - 강점이나 특징을 파악했다면 핵심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원을 투입하면서 해당 자산을 철저하게 연마하는 작업을 진행

▶ 자료 : 일본, 지역산업 혁신 창출을 위한 제언(地域産業のイノベーション創出に向けて), 経済同友会, 2019.2

㉔ 일본, 사업승계 지원 수단으로 민간시장에서의 M&A 플랫폼에 주목

-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후계자 부재 등의 이유로 휴폐업·해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 민관 모두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활동이 크게 증가
 - 2018년판 중소기업백서에 따르면 '07~'17년 중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도산 건수는 감소 추세인 반면,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 등으로 휴폐업·해산을 하는 건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
 - 또한 일본정책금융공고 종합연구소가 '16년 2월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폐업, 해산 이유로 “어려운 후계자 확보(28.5%)”를 호소하는 경영자 비율이 전체의 약 30%가량을 차지
 - 최근에는 어려운 후계자 확보, 민간 M&A 등 중개업자 증가, 전국의 사업인계지원센터 설치 등의 영향으로 제3자 승계(M&A 등)가 증가 경향에 있고, 중소기업 사업승계 수단의 하나로 정착
- 중소기업 사업승계에서 제3자 사업양도(M&A)가 선택사항 중 하나로 정착해 나가는 가운데, 최근 'M&A 플랫폼'이라고 하는 주로 인터넷상에서 판매자 기업과 구매자 기업을 매칭시키는 서비스가 등장
 - M&A 플랫폼은 아직 만능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적은 비용 부담으로 구매자를 폭넓게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
 - 소규모 사업자와의 거래가 많은 신용금고에서도 이것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지원 수단 중 하나로 활용 여지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 한편, 사업 의욕이 왕성한 개인(창업가)이 “제로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관점에서, 구매자로서 M&A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
 - M&A 플랫폼은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승계 과정에서 제3자 승계가 증가하면서, 향후에도 구매자 측의 창업, 전략적 M&A 목적의 사업계승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

▶ 자료 : 일본, 사업승계 지원 수단으로 주목받는 민간시장에서의 M&A 플랫폼(急速に注目を集めるM&Aプラットフォーム: 支援ツールのひとつとしての活用の可能性を探る), 信金中央金庫 地域・中小企業研究所, 2019.3

11 일본, 미중 무역마찰의 플러스 영향은 자동차 부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미중 무역마찰이 업황(業況)에 미치는 플러스 영향에 대해 영향이 ‘크다’고 답한 기업은 0.9%, ‘조금 있다’고 답한 기업은 3.9%를 차지
 - 최종수요 분야별로 ‘영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을 보면 ‘승용차 관련’ 기업 중에서는 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식생활 관련’(6.3%), ‘전기·전자 관련’(6.1%) 순
 - 미중 무역마찰이 업황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다’고 답한 기업은 8.1%, ‘조금 있다’고 답한 기업은 20.0%

- 플러스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다 및 조금 있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564개)의 4.8%를 차지
 - ‘대미 공급’ 기업(32개) 중에서는 이 비율이 6.3%, ‘대중 공급’ 기업(68개)에서는 11.8%, ‘양국 모두 공급’ 기업(73개)에서는 8.2%, ‘양국 모두 공급하지 않는’ 기업(355개)에서는 2.5%로 조사

- 미중 무역마찰이 주는 플러스 영향의 내용을 보면 응답을 한 기업 23개 중 ‘국내 거래처로부터의 수주·판매 증가(대체수요 등)’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30.4%, ‘해외거점의 수주·판매증가’라고 답한 기업이 21.7%를 차지
 - 마이너스 영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응답을 한 기업 160개 중 ‘국내 거래처로부터의 수주·판매 감소’라고 답한 기업이 51.9%였으며, 다음은 ‘원재료가격 상승’(28.8%), ‘수출 감소’(24.4%) 순

-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 마이너스 영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들이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68.2%를 차지
 - 검토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는 ‘판매가격에 전가’(9.7%), ‘판매처 재검토’(9.7%)라고 답한 기업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차지
 - 마이너스 영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들 중 대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77.1%였으며, ‘실시했다’고 답한 기업들은 ‘판매가격에 전가’(7.6%), ‘매입처 재검토’(7.6%)라고 답한 비율이 상위를 차지

▶ 자료 : 미중 무역마찰이 일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결과(米中貿易摩擦の中小企業への影響に関する調査結果), 日本政策金融公庫, 2019.3

12 일본 중견·중소기업, 조직체제 정비가 對美 비즈니스 성공의 주요 요건

- JETRO는 추진하는 사업을 이용해 미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미비즈니스에 성공한 중견·중소기업의 공통점을 분석
 - 조직체제 정비, 관련 정보 수집, 외부 자원 활용, 현지 고객 요구에 맞춘 제품·서비스의 커스터마이징 등에 대해 조사
- 조직체제 정비와 관련해 50개社 중 90% 이상은 ①미국 담당자 임명, ②필요한 권한, 예산, 시간 부여, ③해외사업 담당자는 의사 결정권이 있는 경영진과 긴밀한 연락이 가능하다고 응답
 - 조직체제 정비와 함께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제품의 시장성 및 계약 가능성 등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
- 수출과 관련한 정보수집의 경우, 미국은 넓은 국토, 주(州)별로 다른 법, 복잡한 인종·문화구성 등으로 인한 시장의 다양성 때문에 시장 환경 파악이 중요
 - 43개사(86%)가 현지 경쟁력 유무 검증을 위해 미국에 직접 가서 시장정보를 수집했으며, 80% 이상의 기업이 수출입 절차·법제도 정보를 수집
 - 민간 컨설턴트 등 외부 조직을 이용한 곳은 40%대 중반, 지식재산권 보호 대책을 취한 기업은 50%대 중반을 차지
- 외부 자원(리소스) 활용상황을 보면, 약 90%가 JETRO 현지 사무소의 어드바이저 등 외부 어드바이저와 상담했다고 응답
 - 지자체의 보조금 제도 등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70%를 넘었으며, 종업원 20인 미만의 기업은 약 90%가 정부부처, 정부산하 기구,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제도를 이용
- 약 70%인 34개사는 ‘국내용 상품과 별도로 해외용 상품과 서비스를 개량·개발
 - 해외매출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면, 독자적인 해외용 상품을 제작한 비율은 75%에 달해 해외매출 비율이 높을수록 해외용으로 특화한 상품을 준비하는 경향이 증대

▶ 자료 : 일본 중견·중소기업의 對美비즈니스 선행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점(中堅·中小企業の米国ビジネス先行事例から学ぶ), JETRO, 2019.3

13 스타트업 리더십의 성 불평등 지속

-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의 기술 및 헬스케어 설립자와 경영진을 조사한 결과 성 불평등이 지속
 - 스타트업 중 56%만이 경영진 중에 적어도 1명의 여성을 두고 있으며, 이사회 멤버로 여성 1명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은 40%에 불과
 - 국별로는 중국이 경영진 중 적어도 여성이 1명 이상 포함된 비율이 70%로 가장 높은 수준

- 그러나 스타트업 리더십의 성평등도는 서서히 개선
 - 기술 리더십 분야에서 여성 부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 이사회 및 경영진에 많은 여성이 합류
 - 캐나다 스타트업의 경우 처음 조사에 포함되었는데, 40% 스타트업이 이사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하고 있고, 60%는 경영진 중 한명이 여성

- 스타트업 중 28%는 설립자 가운데 여성이 적어도 한명 포함
 - 여성 설립자들은 CEO 또는 최고 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COO)인 경우가 많았으며, 설립자가 모두 남성인 경우에는 여성은 인적자원(HR) 또는 최고 마케팅 책임자의 직책을 맡는 경우가 다수
 - 남성만으로 설립된 스타트업의 경우 여성이 CEO를 맡는 경우는 단지 5%에 불과한 반면 여성이 HR 책임자인 비율은 63%를 차지

- 60%의 스타트업이 리더십 중 여성 비율을 확대하려는 프로그램을 추진
 - 설립 팀의 성별 구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팀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65%, 남성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57%가 프로그램을 수립
 - 성별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것이 유연한 근무 환경(55%)이며, 그 다음은 채용/인터뷰 기술(37%), 리더십 개발(34%) 등
 - 설립자 중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스타트업들은 남성만으로 구성된 경우에 비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자료 : 스타트업의 여성 리더십에 대한 조사 결과(Women in Technology Leadership 2019), Silicon Valley Bank, 2019.3

14 OECD, 로봇 도입이 반드시 고용을 대체하지는 않아

- 지난 20년 동안 로봇 운영 대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14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로봇 대수는 75만대 정도
 - '93~'14년을 3개 기간으로 구분해 보면, 기간별 평균 성장률은 '93~'00년 78%, '00~'07년 80%, '07~'14년 38%
 - 독일, 한국, 미국,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봇을 도입한 국가로 전체 로봇 도입대수의 70%를 차지
 - 자동차 제조, 전자,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도입 수준
- 로봇 도입과 일자리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술은 직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며, 동일한 직업군도 여러 범주의 로봇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상이
 - 이러한 결과는 총 고용 또는 총 자본스톡과 같은 종합변수를 근거로 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또한 자동화의 영향(생산과정에 로봇 도입)으로 반드시 고용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성격(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
- 로봇은 사람이 수행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수와 이러한 작업을 포함하는 직업의 고용수준 간에는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결과는 상이
 - 즉 자동화가 직업의 작업 구성을 변경시키지만 동일한 직업에서의 고용을 반드시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
- 일반적으로 로봇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직능 수준을 요하는 기초적인 일자리의 상실과 밀접하게 관련
 - 로봇 도입률이 증가할수록 전문기술직이 증가하고, 중간 수준의 직능 수준을 요하는 일자리는 감소
 - 로봇은 숙련 편향적(skill-biased)일 수 있는데, 숙련 근로자들은 보완하고 비숙련 근로자들은 대체

▶ 자료 : OECD 국가들의 자동화 결정 요인과 영향(DETERMINANTS AND IMPACT OF AUTOMATION AN ANALYSIS OF ROBOTS' ADOPTION IN OECD COUNTRIES), OECD, 2019.2

III 주요일정



1 TNW201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19.5.9.~10)



- 본 컨퍼런스는 인공지능부터 블록체인에 이르는 혁신과 관련된 폭넓은 주제를 아우르며 진행되는 이틀 간의 행사로,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연사들의 강연, 패널토론,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 연락처 : conference@thenextweb.com
- URL : <https://thenextweb.com/conference/>

2 WEBIT.FESTIVAL Europe 2019 (불가리아 소피아, 2019.5.13.~15)



- 기업, 정책, 스타트업과 관련된 개별 행사들로 구성된 본 컨퍼런스는 기업가, 정치인,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헬스케어, 핀테크, 증강현실을 이용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및 도시 혁신에 관한 다수의 기조연설, 강연 및 패널토론을 제공
- 연락처 : office@e-acad.eu
- URL : <https://dublitechsummit.com/>

3 RISE OF AI CONFERENCE (독일 베를린, 2019.5.16)



- 본 컨퍼런스는 AI가 정치,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AI전문가, 의사결정권자, 오피니언 리더 등 800명 이상이 참석하며, AI와 활용범위에 관련된 최신 주제로 강연, 토론 및 워크숍을 제공
- 연락처 : VERONIKA@RISEOF.AI
- URL : <https://riseof.ai/>

4 Latitude 59 (에스토니아 탈린, 2019.5.16.~17)



-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에서 개최되는 본 컨퍼런스는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매칭에 초점을 둔 15개의 트랙과 100개의 스타트업 피칭을 진행하며, 창업 스토리 및 사이버보안, 공공부문에서의 혁신과 헬스케어 등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강연을 제공
- 연락처 : info@latitude59.ee
- URL : <https://latitude59.ee/>

5 VIVA Technology (프랑스 파리, 2019.5.16.~18)



- 4회를 맞이하는 본 컨퍼런스는 스타트업과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Tech4Good", 아프리카의 IT산업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는 "Afric@Tech" 등 다채로운 최신 주제와 관련된 9개의 트랙과 180개에 이르는 세션을 제공
- URL : <https://vivatechnology.com/>

6 Collision (캐나다 토론토, 2019.5.20.~23)



- 북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테크 컨퍼런스로 25,000명이 참석하는 본 컨퍼런스는 일류 투자자들이 직접 선별한 유망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일정부터 500명이 넘는 연사들의 강연, 다양한 주제 분야별로 진행되는 개별 트랙, 질의응답 세션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 URL : <https://collisionconf.com/>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Global SME Policy Trend

발행처 : 중소기업연구원

발행인 : 김동열 원장

편집위원 : 전인우 부원장, 김광희·백필규·심우일 수석연구위원 등

주소 : (07074)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

전화 : 02-707-9800, 팩스 : 02-707-9894

홈페이지 : <http://www.kosbi.re.kr>

문의처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조정실 02-707-9873

인쇄처 : (사)한국나눔복지연합회 02-2279-9241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